

## 2022년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경기남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   |                      |                          |   |
|---|----------------------|--------------------------|---|
| 1 | 센트럴해링턴플레이스 작은도서관/송희은 | 파친코/이민진/문학사상             |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애플 tv에서 방영 중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품. 독서가 취미이신 분들 혹은 드라마 시청이 취미이신 분들 이 작품을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죽고싶다고 죽을 수도 살고 싶다고 살수도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이지만, 살아내며 견디어 내는 것이 인생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관계와 운명 속에 느껴지는 달콤하기도 쓰디쓰기도 한 삶의 맛이 다채롭고 즐거우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
| 2 | 센트럴해링턴플레이스 작은도서관/강민영 | 행복한 사람 타샤튜더/타샤튜더/월북      | 현대와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터전을 스스로 멋지게 만들어 가는 그래서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화 작가 할머니의 얘기다. 오래전 친구에게 선물 받은 이 책은 사진도 예쁘고 할머니의 따뜻한 그림과 얘기들이 있어서 종종 펼쳐보게 되는 나에겐 워너비같은 책이다.  |
| 3 | 센트럴해링턴플레이스 작은도서관/정신옥 | 오늘부터, 처음 텃밭 가꾸기/석동연/빌리버튼 |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 책은 텃밭가꾸기가 처음인 사람들도 쉽게 건강한 채소기르기를 위한 방법을 알려준다. 기본적인 채소부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까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아파트 한칸 화분을 이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4 | 센트럴해링턴플레이스 작은도서관/현금녀 | 대한민국 트레킹가이드/진우석,이상은/중앙북스 |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하는 일들을 즐길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늘길은 막히고 공연, 전시회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때 시작한 것이 트레킹이었다. 둘레길도 걸었고, 낮은 산들도 올랐다. 걷다보면 시름을 잊게 되었고 단순해지는 것이 좋았다. 걷다보니 올레길도 걷고싶고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도 걷고 싶다. 자연과 함께 걷는 길이 참 좋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대한민국 트레킹 가이드]는 트레킹에 필요한 것들과 트레킹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섬 여행 가이드]도 함께 읽으면 더욱 다양한 트레킹을 할 수 있다. '등산보다 가깝고 산책보다 신나는' 트레킹을 통해서 '생애 가장 건강한 휴가'를 즐기길 바란다. |
| 5 | 센트럴해링턴플레이스 작은도서관/유미숙 | 지금 여기, 산티아고/한효정/푸른향기     | 어느 순간 여행이 취미가 되었다. 저자와 같은 유방암 수술 후 인생의 순례길을 찾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지고 삶이 끝날 때까지 걸어야 하는 순례자들이라고. 나를 견제하는 건 무게중심을 잡아 주던 배낭과 스틱. 그리고 당신들이라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길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치유했노라고. 나 또한 용기를 내어 감히 스페인, 포르투갈 자유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통해 길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나만의 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

## 2022년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경기북부지부

| 소속 / 이름 |                    |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
|---------|--------------------|--------------------------------|--|
| 1       | 책놀이터작은도서관/박지숙      | 취미 있는 인생 /마루야마 겐지/바다출판사        | 음악 한가운데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웬지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선한 이미지를 붙잡을 수 있고 고독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져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된다.  |
| 2       |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조현아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창비             |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 바뀌어왔다. 과거 위에 현재가 자리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라진 과거를 다시 되살리려는 현재의 노력도 있다.... 문화유산을 통하여 서울의 자존심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생활공간으로서의 서울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널리 즐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유홍준<나의 문화 답사기 9> |
| 3       |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 파이아키아, 이야기가 남았다/이동진/위즈덤하우스     | 수집은 결국 이야기를 모으는 거다. 물건을 모으는게 아니고, 진짜로 모으는 것은 이야기들이다. 수집을 한다는 건 그걸 빌미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자기만의 세계를 하나 구축하는 거다.  |
| 4       | 화전작은도서관/김현경(자원봉사자) |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김혜리/어크로스       | 열두 살을 앞둔 라일리는 회상이라는 마음의 활동을 처음 알게 됐고 모든 회상은 회한과 애상을 수반한다. 회상하기 시작할 때 유년은 끝난다는 걸 어른인 우리는 알고 있다.   |
| 5       |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 아무튼 뜨개/서라미/제철소                 | 뜨개를 하면서 타인의 평가나 인정 내 사회적 쓸모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뜨개를 시작하고 비로소 공백이 휴식이 됐다.   |
| 6       | 와이시티작은도서관/김경진      | 선인장도 말려 죽이는 그대에게/송한나/책밥        | 사시사철 푸른 잎을 유지하고 봄에는 꽃을,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 있죠. 천 년이 넘게 산다는 올리브나무, 잘 키워서 대대손손 물려줄까요?   |
| 7       | 햇빛21작은도서관/윤영연      | 지리산 둘레길 그림편지/이호신 그림, 이상윤 글/산지니 | 우리의 자화상이 길바닥에 놓여 있다. 화사한 봄이 그리워 이 길을 다시 찾는다.   |
| 8       | 에다움도서관/백정희         | 나의 문구 여행기/문경연/뜨인돌              | 커버가 노랗게 변색된 영수증의 수첩, 잉크가 굳은 볼펜, 색이 바랜 편지지와 편지 봉투, 포장지의 문구가 다 지워진 지우개.... 문방구의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보며 '오래된 문방구의 멋'을 깨닫는다.   |

##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   |             |                                      |  |
|---|-------------|--------------------------------------|--|
| 1 | 책돌이도서관/신화숙  | 헤르만헤세의 정원 일의 즐거움 /헤르만헤세/ 이레          | "그 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라도 잃어버린다면 나한테는 친구 한 사람을 잃는 것과 같았다." (p.69)  |
| 2 | 책문화공간 봄/김순정 |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권정민 그림책/ 문학동네 | 식물을 키우고 지켜보고 함께 한다는 것은 가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행복을 담는 일. 식물의 시선으로 함께 한 그 시간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

## 2022년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   |                |                                      |  |
|---|----------------|--------------------------------------|--|
| 1 | 해봄도서관          | 한달 후면 나도 만화가 / 박성일 / 도서출판 노벨         | 덕분에 만화 그리는 연습을 3장 정도 해봤네요^^ 만화라기보다는 사물의 데생연습의 느낌이었지만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 2 | 개인회원/손수정       | 아무튼, 발레 / 최민영 / 위고                   |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발레가 어느순간 많은 이들이 즐겨하는 취미운동이 되고 있다. 스포츠댄스, 살사댄스, 방송댄스등 다양한 댄스들이 이제는 취미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발레는 아직도 대중에게는 낯설고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취미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외국의 경우 노년의 성인들도 발레를 운동으로 하면서 자신의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이들도 많다. 공연에서 보게 되는 발레리나, 발레리노에 대한 환상만 벗는다면 발레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아무튼, 발레>는 취미발레인으로써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와 더불어 발레와 삶을 연결하여 재미나게 써내려간 에세이다. 취미발레를 한다면 또는 관심이 있다면 혹은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
| 3 | 그나라어린이도서관      | 처음 자전거를 탄 날 / 테리 패리쉬 / 스킨라           | 삼촌이 사준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탄 설레임을 떠오르게 하는 책이다. 친구의 자전거를 고쳐주고 처음 탄 주인공 조셉의 해맑은 모습에서 처음 자전거를 탔을때의 내 모습이 떠오르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
| 4 |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 나는 스마트폰으로 매일 인생사진 찍는다 / 방균 / T.W.I.G | 일상을 화보로 만들어 주는 책.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법, 사진 보정법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장점을 녹여낸 비법서. 자신의 감성을 담아 일상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비법들이 담겨있어요.  |
| 5 | 책마실도서관         | 피어나다 / 최향미 / 클                       | 밀그림을 따라 오리고 잘라내 작품을 만드는 페이퍼 커팅 아트 도안입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 선을 따라 자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멋진 작품이 완성되는 마법책입니다. 조각조각 커팅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힐링 취미입니다. 섬세한 라인을 자른 후 주변의 작은 조각을 떼어낼 때의 쾌감과 완성된 작품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최고입니다.   |
| 6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 첫번째 양말목 공예 / 한창숙 / 책밥                | 폐기물을 다양한 생활소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양말목 공예 10가지 기초패턴으로 22가지의 소품을 만드는 법을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겨우내 도서관에 모여서 그림과 설명을 함께 보며 매트, 방석, 쿠션 같은 생활소품을 만들고 나눔도 했습니다~   |

## 2022년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사무국     |  |  |
|---------|--|--|
| 소속 / 이름 |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
| 1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br>다이어트보다 근력 운동/박은지/동양북스              | 당신은 어떤 몸이 되고 싶은가? 그런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근육을 기르고 싶어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면 먼저 근육이 무엇이고,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원리로 근육이 생기고 강해지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원하는 몸에 빠르게 그리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 근육과 몸에 관한 기초 지식은 목적에 따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p.17) |
| 2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br>꽃으로 온 너에게/세실 메츠게르 지음/이세진 옮김/웅진주니어  | 그러던 어느 날,<br>"내 꽃이 말라죽다니...."<br>오데트 할머니의 슬픈 목소리가 들렸어요.<br><br>가만히 있을 수 없던 곰은<br>"어쩌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br>하고 머리 위에 늘 갖고 다니던 구름비를 뿌려주었어요.<br>오데트 아주머니가 가꾸던 식물들은 다시 살아났고, 곰과 오데트 아주머니는 따뜻한 포옹을 했어요.   |
| 3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예서<br>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정세랑, 김인영 외 18명/창비  | 지난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마음을 빼놓은 활자로 꼭꼭 담아내던 때가 떠오른다.<br>그 때는 다 쓴 편지를 부치지 못한 날들도 있었다. 사랑을 전달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br>그 때 나의 편지보다는 더 정갈하고 더 응축된 글들이 이 책을 가득 채우고 있다.<br>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해 편지를 보냈다는 것. 그 점일 것이다.   |
| 4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수민<br>코넨도일(셜록홈즈를 창조한 추리소설의 선구자)/이다혜/ 아르테 | 시기별로 바뀌는 취미 중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취미는 범죄수사물 보기입니다. 그 중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인 엘리멘트리는 21세기 셜록홈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멘트리를 존재하게 한 창시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 흥미로웠습니다.  |
| 5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이은주<br>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주성철(지은이)/김영사   | 저의 취미는 힘들때 홍콩영화보기입니다. 힘들때 양조위를 만나죠. 이 책이 최근에 출판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주성철 기자는 홍콩영화 매니아, 전문가입니다.   |

## 2022년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   |                     |   |  |
|---|---------------------|---|--|
| 1 |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박순선     | 동백꽃이 툭/김미희 글, 정인성/천복주 그림/토끼심                    | 제주 4.3사건 관련 책입니다. 주인공 섭이가 동백꽃을 툭툭 놓아가며 누나와 마을 사람들의 흔적을 더듬어보며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날의 흔적을 따라가며 기억하게 합니다. 글보다 그림의 이미지로 그날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어 기억에 많이 남는 그림책입니다.  |
| 2 | 홍부네그림책도서관/김진희       | 꿈이 강을 따라갔을 때/리처드 T. 모리스 글, 르웬 팜 그림, 이상희 옮김/소원나무 | 그동안 여러 친구들은 저마다 따로따로 살아왔어. 여기 이렇게 함께 있게 될 줄 몰랐단다.  |
| 3 |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이영옥      | 책,이게 뭐라고/장강명/아르테                                | 나는 읽고 쓰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관성을 더 추구하며, 그래서 보다 공적이고 반성적인 인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
| 4 | 용강동작은도서관/손선미        |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이동진/위즈덤하우스                         | 영화를 내 삶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극적인 순간 같은 것은 내 어린 날들에 없었다. 그렇지만 영화는 정확히 찾아왔고 나는 그런 영화와 오랜 세월 끈진하게 동행했다. 나는 삶을 살고, 영화로 삶을 다시 한번 산다. 나는 영화를 만져보고 싶다. -작가의 말-   |
| 5 | 작은도서관 웃는책/조영아       |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필리파 피어스/길벗어린이                       | 과중시계가 13번을 치면 문을 사이에 두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과거의 시간은 빠르게 순서도 뒤죽박죽이지만, 현재의 시간은 짧다. 정원에서 만난 해티(톰을 볼 수 있다)와의 우정. 강을 따라 스케이트를 타는 모험.(코로나로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한 번도 못 갔다.) 정원을 다시 못 갈까봐 걱정하는 톰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해티를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반전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못했다.    |
| 6 |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양정아      | 박가가 오늘도 수영 일기/박새미/유노북스                          | 수영을 새로 시작하신 분, 수영을 배워 보고 싶으신 분, 수영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께, 수영을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이 일기를 보냅니다.  |
| 7 |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박순선     | 나는 [ ] 배웁니다/가브리엘레 레바글리아티 글, 와타나베 미치오 그림/책속물고기   | 나는 젓가락으로 먹는 법을 배웁니다. 젓가락질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늘 포크를 썼거든요. 새우는 그럭저럭 집겠는데 밥알은 너무 작아서 자꾸만 떨어뜨려요..... 맞아요. 바로 나예요. 나는 사진을 꼭 꺼안았어요. "일흔네 살은 전혀 늙은 게 아니야!"  |
| 8 |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놀자'/이지인 | 아무튼, 피아노: 모든 것은 건반으로부터 시작됐다/김겨울/제철소             | 성장 과정에서 사람은 놀라운 정도로 변화한다. 몸도 정신도 타고난 것과 주어진 것 사이에서 요동치며 길을 찾는다. 어설퍼던 일에 능숙해지고 능숙했던 것이 떠나간다. 바랐던 것은 좌절되고 원했던 일은 어그러진다. 그리고 그것이 숙명임을 우리는 천천히 깨달아간다. 아홉 살의 나와 열아홉 살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스물아홉의 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모두 나지만 더 이상은 나일 수가 없다. |
| 9 | 성북동작은도서관/안덕순        | 당신과함께/잔디어/다림                                    | 함께 걸던 그 길을 이제는 따로 걸어요. 조지는 앞서가고 마리는 따라가요.<br>노부부인 마리와 조지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동화책이다. 아름다운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런던의 이곳저곳을 그림책을 통하여 상상할 수 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내가 남편과의 런던여행이 10년 후에 마리와 조지처럼 다시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고 노부부의 사랑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

|    | 소속 / 이름          |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
|----|------------------|--|--|
| 10 |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우미선 | 언젠가 아마도/ 김연수/ 컬처 그러퍼                             | "모든 삶을 다 살 수 없으니 나는 연필을 사겠다."<br>너는 취미가 물어 보면 항상 독서와 여행이었다. 애써 찾아서 하지 않았음에도 여행이란 시간이 나면 해야 할 숙제 같았다. 막상 시간이 나면 잠으로 때웠다. 취미를 갖는다는 것도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이야기 했는데 코로나라는 통제 요소를 만나서 못하는 것이 많으니 더욱 갈급해진다. 연재된 컬럼을 한 권의 책으로 묶으면서 작가는 여행을 언젠가 아마도 누군가를 만나리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처음부터 읽지 않고 눈에 뜨는대로 읽어도 참 좋다.   |
| 11 | 정든마을작은도서관/김미희    | 결국 못 하고 끝난 일/요시타케 신스케/온다                         | 아직도[ ]를 못합니다. 못하는 일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br>줄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결국은 ~~를 못합니다.' 나만의 문장을 완성해보자. 나를 돌아보게 되는 손바닥만한 책이다.  |
| 12 | 다운작은도서관/전진희      | 캘리 서체의 기초 그리고 다양한 활용/나빛 캘리그래피 정혜선/마들렌북           | 나빛-세상에 밝고 빛나는 아이가 태어나다. 멋진 이름이다. 캘리를 하는 시간은 내 정신과 몸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서툴지만 정성을 드러 쓴 글을 선물하니, 상대방은 감동 그 자체...이것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나도 그런 아이가 되고 싶다.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
| 13 | 성메 작은도서관/이경희     | 일기 쓰는 법: 매일 쓰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장하기 위하여/조경국 지음/도서출판 유유 | 일기를 써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기는 현재의 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죠.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며 조금씩 어긋나는 일사의 궤도를 바로잡을 여유를 줍니다. 일기를 쓰며 희노애락애오욕이 뒤섞였던 일상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죠. 삶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일기는 내 삶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는 방향타입니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br>일기쓰기가 '취미'라는 주제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늘 기록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네요. 모두가 잠든 밤,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

## 2022년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울산경주지부

| 소속 / 이름                       |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
|-------------------------------|----------------------|--|
| 1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책누리 작은도서관)/박지혜   | 여행의 이유/김영하/문학동네      |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타인의 인정을 통해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 2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아름드리작은도서관)/김정숙   | 칵테일탐구생활/김호/21세기북스    | 맛있는 칵테일 만드는 TIP<br>1. 계량은 반드시 정확하게!<br>2. 탄산음료는 무조건 차갑게!<br>3. 얼음을 아끼지 말자!<br>4. 잔은 차가울수록 옳다!<br>5. 100%를 찾아라! |
| 3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책사랑 작은도서관)/서정선   | 커피 한잔 할까요?/허영만/예담    |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마셔라. 싱글 오리진이든 블렌드이든 설탕과 크림을 넣은 커피든 중요하지 않다. 커피보다는 커피로 연결된 사람들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
| 4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소은미 | 딸에게 주는 레시피/공지영/한겨레출판 |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냥 산다는 것도 그래. 걷는 것과 같이 산다는것도 그래. 걷는 것과 같이 그냥 걸으면 돼. 그냥 이 순간을 살면 돼.                              |

## 2022년 4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   |                      |                                |  |
|---|----------------------|--------------------------------|--|
| 1 | 하소아동복지관 내보물1호도서관/백영숙 |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 하정 / 좋은여름      | 작가가 덴마크를 여행하며 만난 가족과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도 하나하나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여행에서 가져온 작은 물건들의 이야기에서 따스함이 묻어나는 책이었습니다. 간편하게 정리하며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수 있지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는 물건들과 이야기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
| 2 | 해바라기도서관/박면우          | 리디아의정원/데이비드스몰그림. 사라스튜어트글/시공주니어 | 부모님과 떨어져살게 된 리디아의 유일한 낙은 화분을 키우는 일이다. 그 덕에 삼촌의 집안도 밝아지고, 삼촌과 서먹한 관계도 점점 사라진다. 빈 화분에 꽃을 키우는 아름다움, 절망속에서 희망을 가꾸는 리디아의 예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이다.  |
| 3 |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 청바지프로젝트/재은 지음/서울문화사            | 청바지에 사용하는 천 재질은 참 친근하고 튼튼하여 쓸모가 많습니다. 도서관활동가들이 이 책을 참고하여 아이들과도 엄마들과도 조물 조물 무언가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때마다 감탄하고 즐겁기도 했어요.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없어도 되므로, 누구나 펼쳐놓고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 4 |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김은정    | 루이의 우주선 상상 1호 /에즈라잭키즈 글/웅진주니어  | 루이는 친구들이 새아빠가 고물상 아저씨라고 놀리는게 속상했어요. 속상해 하는 아빠는, 루이를 위해 '고물이 뭐가 어때서? 상상력을 발휘해보렴. 저게 얼마나 멋진 물건인지?'라며 낡은 목욕통으로 우주선을 만들어 주었죠. 우주선에 탄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걸 보고 루이는 신이났죠. 상상력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줘요. 습관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마스크 벗으며 예전처럼 활기차게 생활 할 수 있는 날들을 상상해 봅니다.   |
| 5 | 범지기9단지 달빛도서관/이주희     | 나의 첫 번째 보자기 포장/장여진.백송이/도림북스    | 도서관 활동가 수업으로 보자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자기를 그때 처음 접하고 네모난 천으로 무엇이든 만들수 있는것에 매료되었고 기후환경 문제가 심각한 요즘 보자기를 알려져 많이 사용하면 그 또한 지구를 지키는, 작게나마 실천할수있는 활동인 것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
| 6 | 범지기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 나의 문구 여행기/문경연 저/뜨인돌            | 저는 문구를 좋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샤프를 특히나 좋아합니다. 취미로 샤프를 모으기도 하고 저에게 온 샤프는 반려샤프로 함께합니다. 물론 특정 잉크펜을 엄청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노재팬에 저의 덕후 생활에 제약이 걸리긴 했지만 문구의 세계는 넓고 최근에는 유럽에도 장인들의 문구는 많으니까요. 왜 나는 작가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한탄스러웠습니다. 커피여행을 맥주여행을 다녀본 적은 있지만 문구는 그 여행의 중간중간 들리는 코스였을 뿐 메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샤프 덕후로 망망하고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존경할만한 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프는 슬리브와 팁, 리테이너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고 그립과 배럴은 개인의 취향이고 여기에 무게감은 내가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어떠한 상황에 샤프를 쓰는데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한 맑은 소리를 내는 버튼도 제가 샤프를 고르는데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작가가 부럽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저도 갈 수 있을까요? |